



〈바리사이와 세리〉, 제임스 티소, 브록클린 박물관

그러나 세리는 멀쩡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 18,13-14)

[제1독서] 집회 35,15ㄴ-17,20-22ㄴ

[화답송] 시편 34(33),2-3,17-18,19와 23
(◎ 7ㄱ)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젖값을 벗으리라. ◎

[제2독서] 2티모 4,6-8,16-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루카 18,9-14

[성가 안내]

- 입당성가: [70] 평화를 구하는 기도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168] 오묘하온 성체
- 파견성가: [34]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⁹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¹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¹¹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¹²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¹³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¹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성화 해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루카 18,13)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세리는 오직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 그리고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는 자신이 아닌 하느님을 향한 세리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삶, 이는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하느님께서 세리를 의롭게 하신 까닭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바리사이와 세리>, 제임스 티소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는 유대교 입장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면서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위하여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반역자요 수탈자의 앞잡이였으며 종교적으로도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먼저 바리사이는 양팔을 벌리고 자신만만하게 서서 자신은 죄인이 아닐뿐더러 단식 규정과 십일조 규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임을 하느님 앞에 내세웁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의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거나 무엇을 청하는 내용은 없고 오직 자신을 내세우는 내용뿐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간단하면서도 절실하고 진지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느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며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공동체 창설 33주년 기념 성경 퀴즈대회

바오로 서간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2티모 4:7)



구역 단체전

- ★ 우승 : 비엔나 구역
- ★ 준우승 : 웨어팩스 2구역
- ★ 3등 : 라우든 구역

개인전

- ★ 1등 : 주광국(그레고리오)
- ★ 2등 : 김소연(젼마), 주기연(그라시아), 신수연(마리아)
- ★ 5등 : 이동명(안젤로), 박이선(유스티나)
- ★ 특별상 : 광동현(레오, 11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토 1서 3,16-17)

여러분이 ○○○○ ○○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의 ○○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 ○○입니다.

정답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지난 20일(일)에 열린 <공동체 창설 33주년 기념 성경 퀴즈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열심히 공부한 성경 지식을 진지하게 겨루었다.

지난 해 성경 퀴즈대회는 <네 복음서>에서 출제된 데 이어 올해는 <바오로 서간>에서 출제되었다. 문제를 출제한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는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박해와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릴 길을 달렸다” 며 “우리 공동체도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새기며 하느님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만들었다” 고 말했다.

구역별 대항에서는 비엔나 구역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며, 웨어팩스 2구역과 라우든 구역이 2등과 3등을 차지했다. 이어진 개인전은 강두영 신부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에 대한 보충 설명도 해주어 신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역별 대항 퀴즈대회를 진행한 서경원 마르티노 형제(구역부 회장)는 “많은 분들이 성경 퀴즈대회의 취지에 맞게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기회로 삼으셨다” 며 “내년에는 구역뿐만 아니라 성당 내 단체별 대항도 함으로써 성경 퀴즈대회가 더욱 활발해지면 좋겠다” 고 말했다.

성경 퀴즈대회를 지켜본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한 신자들의 열정을 보며 흐뭇하고 감사했다” 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관심이 계속 확대되어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신자들이 참가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 하상회 10월 월례회



하상회 10월 월례회가 지난 20일(일)에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전교주일 복음말씀을 인용하여 “하느님 모습으로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건강교실 시간에는 이혁찬 루카(한의사) 형제의 강의로 ‘뇌졸중에 대한 예방과 조치 방법’을 듣고, 이 달 생일을 맞은 13명의 형제들을 축하했다.

○ 안나회 10월 월례회

안나회는 지난 20일(일) 월례회를 갖고 9, 10월에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축하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뷔페식으로 준비된 점심을 먹고 친교 시간을 가졌다.



○ 11월 위령 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위령 성월은 998년 무렵 베네딕도회 소속의 프랑스 클뤼니 수도원에서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하여 연옥 영혼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 데서 비롯되어 전 세계 교회로 확산되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인의 통공’(通功)이라는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하다. 곧,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 있는 이들도 동일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또한 천국의 성인들도 이 세상의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한다.

위령 성월인 11월은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하므로 미사 독서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된다. 이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편,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용히 묵상해 볼 수 있는 은총의 시기이다.

❖ 위령의 날 알리턴 교구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1월 2일(토) 오전 11시, 주교님 집전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9900 Braddock Road, Fairfax)

❖ 본당 신자들이 드리는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1월 9일(토) 오전 11시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30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7, 2019

Be humble



<오마리아 주일복음/바오로말 콘텐츠>

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tells the story about two men praying in the temple. One of them, a Pharisee, always looked like he loved God, but on the inside he really only loved himself.

The other man was a tax collector. The people in those days hated tax collectors because they took too much money and worked for their enemies.

When the Pharisee was praying he was really just telling God how much better he was than other people. Do you think that God was pleased with his prayer?

The tax collector, on the other hand, was standing far off and prayed to God with his

head bowed down, asking God to have mercy on him. He knew that he was a sinner and that he needed God's help. Do you think that God was pleased with the tax collector's prayer?

Being humble isn't a sad or bad thing. It means knowing that all the good things we have come from God. Being humble also lets us be sorry for the selfish things we have done, because it lets us admit that it was our own fault, allowing God to help us overcome our selfishness.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https://www.thekidsbulletin.com>>

NOVEMBER 1

All Saints Day (Solemnity of All Saints)



<"ALL SAINTS" by Fra Angelico >

All Saints' Day is a solemn holy day of the Catholic Church celebrated annually on November 1. The day is dedicated to the saints of the Church, that is, all those who have attained heaven. It should not be confused with All Souls' Day, which is observed on November 2, and is dedicated to those who have died and not yet reached heaven.

All Saints' Day is a Catholic *Holy Day of Obligation*, meaning all Catholics are required to attend Mass on that day, unless they have an excellent excuse, such as serious illness.

Find the names in the list. Word directions : → ↓ ← ↗ ↘

WORD SEARCH

The Feast of all Saints is November 1st.

The list has the names of just some of the many saints in heaven. Do you have a saint name? If you don't, maybe you can become the first saint with your name!

Andrew	Isaac	Michael	S
Anne	James	Nicholas	O
Bernadette	John	Paul	A
Catherine	Justin	Robert	I
Christopher	Kateri	Simon	L
Dominic	lidwina	Stephen	L
Elizabeth	Luke	Teresa	I
Francis	Lucy	Thomas	W
Gemma	Mark	Vincent	R
Gregory	Mary	William	D
Henry	Matthew		A
			M
			O
			L
			I
			E
			T
			A
			M
			I
			R
			A
			N
			C
			H
			T
			E
			C
			N
			I
			V
			E
			D
			N
			F
			K



On October 18-19, 2019 St Paul Chung held a CYO lock-in in the Hasang building in which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get closer with one another through mass, fellowship, small groups, and fun activities. At the lock-in, there were about 25 students and teachers who helped make this event fun and exciting. During the lock-in, students celebrated mass, sang praise songs, and took part in small groups and activities to get closer as CYO.

-Andy Ahn, 11th Grade Teacher



David Yi (12th)

"CYO lock-in was a great experience for me and other students by doing fun activities, praising and small groups."



Saechan Hong (11th)

"Lock-in was planned by the CYO leadership team and went very well. We got closer to God and did many activities that had to relate to the church's theme this year: "Run This Race".

2019 RALLY Oct 20, 2019



Three students and six volunteers from our parish attended the RALLY event at Bishop O'Connell High School in Arlington on Sunday, Oct. 20.

This annual event is an opportunity for the young Church in the Diocese of Arlington to gather each year to pray, learn, and celebrate the Catholic faith. Rally was a spiritually awakening event for both students and teachers. We started the event with a keynote speaker who talked about our diocese's goals, the importance of the event, and how youth Catholics should grow. Later on, we had mass with Bishop Burbidge and listened to his live podcast.

Students and teachers ended this event with eucharistic adoration for 40 minutes. Overall, the event made us grow spiritually and strengthened the bonds between students.

CYO Student Council

On September 29th 2019, students in CYO voted for their student reps. Below is your 2019 CYO reps from left to right: Yebeen Chang (President), Angela Hong (Treasurer), Richard Hong (Liturgy), and Dylan Jang (Secretary). All the reps are happy and excited to take a bigger part in CYO this year.



"I enjoy taking care of other CYO students, as well as organizing events and trying my best to make it a fun filled year."

YEBEEN CHANG

"I like to show how much leadership I can show towards others of all grades and how open I can be toward CYO."

DYLAN JANG

"I would like to see a stronger fellowship between the upper and lower classmen. Through this I believe we can walk our faith together and grow our relationships with God."

ANGELA HONG

리사이클(재활용품) 수거



- 종이와 플라스틱 물병은 반드시 비운 후에 리사이클 수거함에 넣어주십시오.
- 일반 쓰레기는 리사이클 수거함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 수거할 위치: 친교실, 성당 환관, 하상관

1 공동체 창설 33주년 기념 음악회 (전례부 주최)

- 일시: 10월 27일(일) 오후 1:30, 성당
- 음악회가 끝난 후 친교실에서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친교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

- 11월 1일(금)은 '모든 성인의 날' 의무 대축일입니다.
- 미사: 11월 1일(금) 오후 7:30, 미사 후 성체 강복

3 위령의 날 알링턴 교구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1월 2일(토) 오전 11시, 주교님 집전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9900 Braddock Rd, Fairfax)

4 본당 신자들이 드리는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1월 9일(토) 오전 11시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 미사 지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주일학교 공개수업

- 일시: 10월 27일(일) 오전 10시 - 오전 11:15
-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빠뜨리치안회 10월 모임

- 일시: 10월 27일(일) 오후 2시, 친교실(A-1)

7 요한회 성지순례 (Emmitsburg 성지)

- 일시: 10월 27일(일) 오전 9시
- 성지 방문 및 14처 십자가의 길/미사

8 K of C 월례모임

- 일시: 10월 27일(일) 오전 11:30(A-1,2)

9 복사단 모임

- 일시: 10월 27일(일) 오후 1시(B-1,2)

10 병자 영성체

- 일시: 11월 1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264-0050

11 구역 임원교육

- 일시: 11월 3일(일) 오전 11:30(B-1,2)

12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11월 3일(일) 오후 1시(B-1)

13 2019 - 2020년도 첫 영성체반 신청

- 대상 및 신청: 3학년 이상 학생들, 11월 24일까지
- 매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하상관 로비)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4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11월 3일(일) 오후 1시(A-3,4)

15 미 동북부 ME 부부 주말 교육

- 일시: 11월 1일(금) 오후 7시-11월 3일(일) 오후 5시
- 주제: 부부의 행복을 돕는 주말
-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Fort Lee, New Jersey
- 신청: 김진 돈보스코 (201)232-7453
- 문의: 김 요안 비안네 (703)830-5473

16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33일 봉헌 기도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기도를 함께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11월 5일(화)까지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이종석 루카 (703)254-7963

17 2020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및 봉헌초(미사에 사용), 병초 주문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10월 목주기도 성월 세일합니다.
- 문의: 권데레사 (703)346-6067

18 알링턴 교구 St. Lucy 프로젝트 지원 푸드 드라이브

- 기간: 10월 27일(일) - 11월 23일(토)
- 도네이션 장소: 하상관 로비 및 친교실
- 도네이션 품목: 드라이 푸드(파스타, 스타핑 믹스, 콘브레드 믹스 등), 통조림(야채, 타기 그레이비 등)
-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추계 대청소

구역부 주관 추계 대청소가 11월 10일(일)에 실시됩니다. 다음은 구역별 담당 장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 웨어팩스 1: 교실 A-1,2,3,4
애난데일 & 라우든: 교실 B-1,2,3,4
우드브리지: 현관, 화장실
비엔나: 본당(1,2층), 유아실
웨어팩스 2 & 센터빌: 본당 건물(청소 및 낙엽제거)
웨어팩스 3 & 버크: 사제관 주변, 나눔터(청소 및 낙엽제거)
알링턴-폴스 & 프린스윌리엄: 친교실 홀, 바닥, 유리창소
스프링필드: 주일·보좌 신부님 방, 복도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10월 27일(일)	연중 제30주일	본당 음악회(오후 1:30, 성당), 빠뜨리치안회(오후 2시),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KofC 모임(오전 11:30, A-1,2), 주일학교 공개수업, 요한회 성지순례(오전 9시)
28일(월)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사도 축일	평일미사(오전 6시)
29일(화)	연중 제30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 성인학교 (하상관)
30일(수)	연중 제30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31일(목)	연중 제30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11월 1일(금)	모든 성인 대축일	병자 영성체, 하상 성인학교,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오후 7:30, 성당/미사 후 성체강복), 회장단 회의(오후 8:30)
2일(토)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교구 합동 위령미사(오전 11시, Fairfax Memorial Park), 파티마 첫 토요일미사(오후 6:15)
11월 3일(일)	연중 제31주일	구역 임원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의(오후 1시, A-3,4), Daylight Saving Time 종료

11월 3일(일), Daylight Saving Time 종료

다음 주일인 11월 3일(일)부터 오전 2시가 오전 1시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30주간 : 아가 5-8, 예페 6

KACM TV 하이라이트

10월 31일(목) 오후 5:00-6:00
11월 1일(금) 저녁 8:00-9:00
11월 3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강: 하느님 자비의 7가지 비밀. 성 바오로 수도회 한기철 실바노 신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10월 20일(연중 제29주일)

주일헌금	\$7,204.00
교무금	\$8,010.00
교무금(크레딧카드)	\$4,390.00
특별헌금	\$870.00
2차헌금	\$2,625.00
합계	\$23,09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영화, 온규희(벌바라),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오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오셉), 김용구(베네딕), 김자영(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성(렘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지(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나), 정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나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베), 안성호(요한), 구분민(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창(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야사시), 제임스 리(요한), 안병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대학 진학 컨설팅 대니엘 김(요셉) FCPS 교사 / 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703-662-137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Well Skin Care 오픈기ئم 특별 이벤트 애난데일, 한국일보 맞은편 703-627-712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메디케이드 신청 도와드립니다.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